

광학신상품

(주)다미상사, 디지털기 전문 클리너 '디지털린' 출시

다미상사(대표·이기철)에서는 디지털기 전문 클리너인 '디지털린(DigiClean)'을 새롭게 선보였다.

일본 전문 클리너 제조업체인 오이시상사와 공동 개발한 이 신제품은 항균기능과 흡수력이 탁월한 초극세사 매직 클리너를 응용하여 디지털 카메라 및 핸드폰에 탈부착이 가능하다. 기존에 쓰여지고 있는 고리 달린 핸드폰 클리너와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 수십번 탈부착해도 변함없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할 때는 초극세사 디지털린으로 지문 및 먼지, 손때, 기름때, 화장 잔여물을 닦아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뒷면에 간편하게 붙여 놓기만 하면 된다.

다미상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제품은 일본 전문 클리너 제조 업체인 오이시상사와 공동 특허출원 중"이라며 "일본 디지털 업계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 관련 업계에서도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미상사에서 선보인 디지털기 클리너 '디지털린'

삼성테크윈(주), 700만 화소급 디카 '케녹스 V10' 출시

삼성테크윈(대표·이중구)이 슈나이더 렌즈를 채용한 7백만 화소 디지털카메라 '케녹스 V1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총 10개월 동안 5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제품으로 일반사용자뿐만 아니라 고급사용자를 만족할 수 있는 다양

한 기능을 갖췄다.

초점거리는 38mm부터 114mm, 렌즈밝기는 2.8부터 시작하며 SD메모리와 전용 충전지를 사용한다. 크기는 105×56.5×29.5mm, 무게는 150g으로 비교적 작은 사이즈며, 광학3배줌을 지원하고 MPEG-4 포맷 사용으로 256MB메모리 사용시 약 2시간 10분간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부가기능도 대폭 확대돼 사진액자를 선택해 촬영할 수 있는 포토프레임 기능, 2~4분할 촬영, 4cm 매크로 촬영 기능 등 편의기능과 11가지 촬영모드를 제공한다.

고급사용자를 위해 조리개 우선, 셔터우선 등 수동기능을 지원하며, 노출조정 및 아웃포커싱 기능도 포함했다. 삼성테크윈은 '케녹스 V10'을 지난해 출시했던 '케녹스 알파5', '케녹스 알파7'에 이은 주력모델로 삼아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테크윈의 700만 화소 디지털카메라 '케녹스 V10'

삼성테크윈(주), 500만 화소급 디카 '케녹스 U-CA5' 출시

삼성테크윈(대표·이중구)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컴팩트형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공략을 위해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광학 3배줌 기능의 500만 화소급 디지털 카메라 신제품 '케녹스 U-CA5'를 국내외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큰 특징은 독자적인 SF(Safety Flash) 기능을 최초로 적용, 광량이 부족한 실내 등에서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아 시력의 형성이 완전하지 못한 영유아 등의 눈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목현상도 발생하지

않아 더욱 쉽고 편안하게 고유의 이미지 표현과 밝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광학 3배줌 및 디지털 5배 줌 기능으로 최대 15배 줌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휴대가 간편한 콤팩트 타입의 가로 102.2×높이 54.7×폭 29.6mm, 무게는 130.6g이다. 500만 화소급 고화소 CCD를 채용하여,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촬영용도에 활용이 가능하고, 삼성테크윈의 SHD 독자 렌즈 기술이 접목되어 선명한 화질을 구현했으며, 원색계 필터 방식의 1/2.5" CCD를 탑재해 우수한 감도와 뛰어난 색재현성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U-CA5'는 또한 크래들, 핸드폰 충전기, USB 충전 등 다양한 충전 시스템을 적용시켜 사용자가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쉽게 했다. 또한 USB 충전 기능을 채용하여 USB 케이블 하나만으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전송하면서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다.

이밖에 포토프্রে임, 아웃 포커싱, 분할촬영 등 다양한 특수효과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테크윈의 500만 화소 신제품 '케녹스 U-CA5'

(주)우성포토교역, 코니카미놀타 디지털 SLR 'DYNAX 7D' 출시

우성포토교역(대표 · 박노신)은 코니카와 미놀타가 만나 발표한 야심찬 첫 작품인 DSLR 'DYNAX 7D'를 출시했다.

'DYNAX 7D'은 바디 자체에 손떨림방지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SLR 카메라로서 출시와 함께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이른바 Anti-Shake 테크놀러지라 불리는 바디내장형 손떨림방지기능

은 기존의 카메라들과는 달리 CCD자체가 움직여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술로서, 셔터스피드 조절이나 삼각대 없이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어두운 공연장에서도 플래시 없이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α 시리즈'의 렌즈와 액세서리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2.5 인치의 대형 LCD 모니터를 통해 카메라 설정이나 촬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미놀타 고유의 뛰어난 색감은 미놀타 SLR카메라를 사랑하는 매니아들을 만족시키기엔 손색이 없다는 것이 우성포토교역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성포토교역에서 선보인 코니카미놀타의 디지털 SLR 'DYNAX 7D'

한국후지제록스(주), 지능형 고성능 디지털 복합기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 정광은)는 초고속 · 고화질에 문서보안기능까지 갖춘 고성능 흑백 디지털복합기 신제품군 '다큐먼트센터(Document Centre) 1100 · 90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큐먼트센터 1100 · 900'은 최초 출력 대기시간 3초만에 1200dpi 고해상도 복사물을 분당 110매 · 90매씩 출력해내는 동급 최고속을 자랑함은 물론, 사용자 ID 인증 · 워터마크 인쇄 등 다양한 보안기능도 제공해 기밀문서의 출력 · 복사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 분당 80매 이상 고속출력을 요구하는 대기업내 복사실 · 대규모 사무실 · 복사출력전문점 등을 겨

냥한 전략제품이다.

후지제록스는 신제품군 출시를 계기로 현재 42% 점유율로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 영역의 공세를 더욱 강화, 오는 2007년까지 이 시장 50%를 점유한다는 목표다.

이 제품은 자동 양면출력시에도 단면출력과 동일한 고속출력을 지원하며, 자동 스테이플링 · 펀치 · 중철은 물론, 3중 접지 · Z자형 접지 등 다양한 자동 후처리 기능도 지원한다. 마찰률이 높은 회전드럼을 채택해 내구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스캔문서를 바로 이메일로 전송하는 '스캔 투 이메일(scan-to-email)' 기능, MS 아웃룩의 이메일주소를 직접 불러들여 발송하는 자동 메일링 기능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도 강화했다.



▶한국후지제록스의 고성능 디지털복합기 '다큐먼트센터 1100 · 900'

한국후지필름(주), 플래시 메모리 카드 출시

한국후지필름(대표 · 유창호)은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폰, PDA기기 등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SD카드'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SLC타입의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 기존 MLC타입 플래시메모리에 비해 3배 이상 빨라진 고속 데이터 전송률로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시 탁월한 속도를 자랑한다. 또한 전력소비의 최소화와 함께 10만번 이상의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해 내구성을 대폭 강화하고 높은 안정성을 유지토록했다.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PDA 등 467개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호환성 테스트를 거치고 제품

이상 발생시 후지필름의 전국 A/S센터를 통해 1:1 교환과 같은 각종 A/S를 받을 수 있다.

한국후지필름의 박기형 이사는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PDA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의 증가에 따른 관련 메모리 칩의 생산의 비중이 커진 만큼 이번 ‘플래시 메모리 SD 카드’의 출시를 기점으로 후지필름의 신규 사업인 ‘저장 미디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후지필름은 휴대용 디지털 기기와 저장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동영상, 고화질사진, 고음질 등)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차세대 저장매체인 RS-MMC(Reduced Size Multi Media)카드와 미니 SD 카드도 곧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후지필름에서 선보인 플래시 메모리 카드

회원사 동정

신규회원 가입-특별회원(1개 사)

(주)등인산업(대표 · 이진태)

- TEL : (031)452-3057
- FAX : (031)452-3005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5
- 홈페이지 : www.mitechkorea.com
- 주요품목 : 광학기기 부품 외

(주)신도리코, MS, 오피스 솔루션 영업 제휴

신도리코(대표 · 우석형)가 지난 1월 18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차세대 ‘종합 오피스 솔루션’과 관련해 판매 노하우를 공

유하고 공동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전략적으로 제휴했다.

이번 제휴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신도리코의 영업망과 영업 체계 · 대고객 노하우를 통한 판매 인프라를 확대하고, 신도리코는 윈도 OS와 MS 오피스 프로그램 기술 축적과 영업 · 서비스 능력을 심분 활용해 디지털 복합기와 복사기 관련 영업을 벌이게 된다. 또 두 회사는 프로모션, 이벤트, 판매점 고객 지원, 헬프 데스크 원격지원 등 분야별 세부 마케팅에도 공동으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손낙훈 신도리코 부사장은 “하드웨어 통합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해 단순 복사기 · 프린터 판매만으로 경쟁력이 없다”며 “이번 제휴로 소프트웨어와 연동해 고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고 원스톱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를 앞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이오테크닉스, 국내특허 2건 취득

이오테크닉스(대표 · 성규동)는 폴리곤 미러를 이용한 레이저 가공장치 및 방법에 관한 국내 특허 2건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효율적으로 절단하는 장치 및 방법과 가공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학계 설계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광옵토, ‘www.hkopto.com’ 회사 홈페이지 새롭게 개편

한광옵토(대표 · 노원복)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광옵토는 기존 본사에서 담당하는 광학 및 가위사업에 대한 홈페이지와 서울 광전자연구소에서 운영하던 레이저마킹기 관련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며 대대적인 공사를 마쳤다.

새로운 홈페이지(www.hkopto.com)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한글과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소개를 비롯하여 광학사업부, 광전자(레이저)사업부, 가위사

업부 등으로 나뉘어져 상세한 소개를 담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 왼쪽 홈 아래에 회사 홍보 내용을 담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충분히 살리는가 하면, 중앙에 ‘한광옵토 Notice’와 ‘한광옵토 News’란을 두어 회사의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다.

한국후지필름(주), 신임 유창호 대표이사 선임



▶한국후지필름의 신임 유창호 대표이사

한국후지필름이 신임 대표이사에 유창호 전 호텔롯데 전무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유창호 대표이사는 47년생으로 부산고와 국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75

년부터 롯데그룹에 입사하여 롯데제과 이사, 호남석유화학 상무이사, 롯데전자 대표이사, 호텔롯데 전무이사 등을 거쳐 이번에 한국후지필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한편, 한국후지필름은 최성종 전 기획실장을 이사대우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휴비츠, 작년 순익 30억 ‘사상최대’

휴비츠(대표 · 김현수)는 지난 1월 26일 2004년 순이익이 30억원으로 2003년보다 92.5% 증가했다고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매출액은 173억원, 영업이익은 31억6,400만원으로 각각 11.5%, 87.8% 늘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실적이다.

휴비츠의 수익성 개선은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한 원가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휴비츠는 올해도 2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비츠 관계자는 “지금 미국(Veatch사, 82만 달러), 중국(haitong사, 258만 달러), 유럽(접수 예정) 등 국내외의 크고 작은 80여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들의 올해 최소 판매 금액의 집계 상황을 감안

해 보면 현재 환율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 이상의 고성장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비츠는 무패턴렌즈가공기(옥습기)의 3월 공식 양산을 앞두고 필드테스트와 선주문 계약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올해 매출 신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캐리마, 신사옥 신축과 함께 디지털캐리어 양산체제 돌입



▶캐리마의 신사옥 전경, 원내는 이병극 사장

(주)캐리마(대표·이병극)가 지난 12월 말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디지털캐리어(이하 DPS)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리마는 신사옥 확장 이전에 따라 기존에는 다른 지역으로 나뉘져 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비롯하여 생산실, 품질관리실, 영업부, 관리부 등을 신사옥에 통합하면서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DSP의 생산 가동률을 높일수 있는 충분한 생산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많게는 1천대까지 국내의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캐리마는 2004년 DPS의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여 총 30억원에 해당하는 200대를 판매한 바 있는데 이중 수출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DPS는 일본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3곳 회사와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중 가장 큰 물량 공급은 일본의 오리엔탈 회사로 약 100대의 공급계약이 완료되었다.

이병극 사장은 "지난해 독일 포토키나전 사회에 참가했을때 100여 국가의 400여

회사에서 DPS 대리점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며 "금번 본사를 확장 이전하면서 DPS의 양산체제가 가능해져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DSP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광학이벤트

한국광학회, 제16회 정기총회 및 2005년도 동계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광학회의 제16회 정기총회와 2005년도 동계학술발표회가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총회초청 논문 3편, 광학특강 2강좌, 분과 초청논문 12편과 구두 논문 105편, 포스터 논문 52편으로, 총 17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광산업 기술특강을 주제로 하여 3강좌의 Tutorial이 진행됐으며, LED기술과 최신 광산업 기술동향에 관한 Special Session 8편이 진행되었다.

이번 동계학술발표회에서는 몇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어 관심을 끌었다. Poster 발표를 비롯하여 기존의 Tutorial Session 이외에 산업체를 위한 Special Session과 채용박람회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산업체 전시회는 한 해에 한번 동계학술발표회에서 Exhibition OSK로 확대하여 개최하기로 하는등 지난해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광학산업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금년에 3회가 되는 OSA Student Prize를 직접 수여하기 위해 멀리 미국에서 찾아온 미국 광학회 Susan Houde-Walter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학자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한편, 첫날인 2월 17일에 있었던 정기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 광학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각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식과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기회장으로는 전남대학교의 정창섭 교수가 선출됐다.

이날 공로상은 육군사관학교 홍경희 교수, 서울대 제원호 교수, 인하대 이민희 교수, 청주대 이종용 교수, 한남대 조재홍 교수, KAERI 백성훈 박사 등 총 6명에게 돌아갔으며, 전남대 광기술인력교육센터와 인하대 광기술교육센터 등 2개 기관도 공로상을 수상했다.

학술상은 과기원의 이용희 박사, 논문상은 과기원의 김승우 박사, 논문장려상은 송실대의 정병민 회원, 기술상은 옴포맥직(주) 강희전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이밖에 기업체에서 명진크리스텍(주) 최재혁 대표이사, 이오테크닉스(주) 성규동 대표이사, 진성레이저 이하원 대표이사, 큐빅레이저시스템 김창곤 대표이사, 한국전광(주) 채진석 대표이사 등에게 감사패가 돌아갔다.

광학인포메이션

산자부, 10대 핵심전략 부품·소재선정

LCD부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 투명탄소나노튜브(CNT) 복합소재 등 10대 전략 부품·소재 품목이 선정됐다. 기업체와 산업자원부는 10대 전략 부품·소재에 향후 5년간 총 1조 5,000억원(정부지원 2,5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가치 20조원, 오는 2008년 이후 이 산업에서 연간 36만여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10대 전략 부품·소재는 파급효과가 큰 3대 업종(전기·전자/자동차/기계)에서 선정됐다. 전기·전자 분야 5개, 자동차 3개, 기계 2개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LCD부품, 투명CNT복합소재, RF임베디드 기판, 근거리무선통신복합모듈, OLED재료 등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LCD부품으로

는 픽셀디밍 구동 면광원, 환경규제에서 자유로운 무수은 램프, 전량 수입에 의존 해온 휘도향상필름 등이 포함돼 있다.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정전기를 없애 차세대 케이스 소재로 각광받는 투명CNT 복합소재에서는 컬러 전자파 차폐기능 외장재, 고강도 경량 외장재, 정전분산플라ستيك 등으로 구성됐다.

기관에 저항등 수동부품을 심어 활용면적을 확대하는 RF임베디드 기관 과제로는 수동형 부품 탑재 기관 재료와 기관, 각인 기술 적용 기관이 포함된다. 지그비·RFID·UWB·WLAN 등 다양한 무선표준을 지원하는 무선통신 복합모듈에서는 복합 모듈용 안테나, 다중 FEM 등이 세부과제로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OLED에는 수용성 인광재료 및 잉크, 투명 흡습제, 감광성 유기막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기업체는 2008년까지 전기·전자 분야에 1조 1,000억원, 자동차에 1,800억원, 기계 분야에 1,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과제 개발이 마무리되는 2008년에 LCD부품(5조원), 투명 CNT복합소재(15조원), RF임베디드 기관(9조 5,000억원), 근거리 무선통신복합모듈(150조원), OLED재료(4,000억원) 등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10대 전략 품목의 개발 주체는 중핵기업이다. 전체 개발(모듈화)은 중핵기업이 하되 세부 부품은 중소 및 벤처기업이 담당하고 대기업은 기술을 제공하면서 향후 사업화시 구매하는 역할을 맡게 돼 대·중소기업 모두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산자부측은 밝혔다. 10대 전략품목마다 4~5개의 개별 과제가 있고 개별 과제별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만큼 총 40~50개의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산자부, 친환경상품 개발 지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친환경상품 개발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애로기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http://recycling.ats.go.kr>) 구축으로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실무 담당자와 애로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제품 개발에 필요한 2만여 건의 관련 특허 및 기술정보와 각종 설비의 이용에 대해서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졌다.

기술표준원 측은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친환경상품 개발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기술지원 및 관련 정보 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애로기술 해결 외에도 친환경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친환경상품 품질인증사업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 지역산업 기술 개발 1,515억 투입

산업자원부는 올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총 1,515억원,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에 3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지역소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의 기술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소재 기업의 공동애로기술 해소를 지원하는 공동기술분야에 약 426억원 △전략산업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중점기술분야에 약 200억원 △다수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기술분야에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02-6009-8000)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대응 종합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총 380억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EU

의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RoHS) 및 폐차처리지침(ELV) 등의 규제에 대응하여 유해물질대체기술과 자원순환형 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별 전문기관 및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컨소시엄 전체 예산의 75%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할 기관 및 사업자는 국가 청정생산지원센터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3월 1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시스템' 개통 6월 30일까지 이행 계도기간 운영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율통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17일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http://www.sec.go.kr>)'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입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전략물자의 수출입으로 위법을 행하는 폐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는 UN안보리의 1540호 '대량과괴무기(WMD) 관련물자 확산 방지'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해 1만2,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8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 70여개 업체 200여 품목이 1종 전략물자 통제리스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뒤늦게 위법사실을 알게 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나라의 무역현실에 비춰볼 때 수출허가 신청절차, 직원의 왕래, 허가 처리기간으로 인한 기업부담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이번 시스템 개통과 함께 1종 전략물자 200여개 품목을 생산, 수출한 업체에 대해 '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관용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누구나 쉽게 품목과 절차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또한

이후에도 이행 계도기간(2월 18일~6월 30일)을 운영하여 이 기간이 지난 후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수출입 통제리스트(1종 전략물자)에 올라와 있는 품목을 보면 반도체 소자·제조 장비에서부터 TFT LCD 제조용장치, PCB 등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품목들은 군사용으로 이용가능한 품목들로 철저히 통제받는 품목들이다. 물론 IT부문 전부는 아니지만 모델별로 수출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정보 없이 수출이나 수입을 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수출의 상당부분을 IT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물자 통제리스트는 자칫 함정이 될 수도 있다.



▶2월 17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정병철 LG CNS 대표와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이희범 산자부 장관, 유창무 KTNET 대표, 한영수 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장(왼쪽부터)이 개통 버튼을 누르고 있다.

광학뉴스라인

본 란에는 '광학세계' 편집부에서 직접 취재한 일부 기사와 함께 일간지, 잡지, 인터넷 등에 올라 있는 기사 중에 광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날짜와 출처는 밝히지 않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학세계'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카메라 및 이미징

하이브리드 카메라 속속 출시

C넷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업체들은 두가지 기능을 모두 강화한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은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소니가 지난해 말 발표한 'MI' 디지털 카메라는 비디오 연속 동작을 640×480의 고해상도로 버퍼 메모리에 연속 저장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촬영기능을 갖췄다. 셔터를 누르기 5초 전과 3초 후의 연속장면을 동시에 메모리카드에 저장, 사진 촬영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카시오의 엑셀림 프로 EX-P505 역시 500만 화소 디지털 스틸카메라 기능과 640×480 픽셀의 비디오 촬영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은 고해상도 프린팅 기능도 제공한다.

JVC 역시 이와 비슷한 제품인 에브리오 GX-MC100 비디오 카메라를 내놓았다. DVD급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기능과 1600×1200 크기의 고해상도 사진 촬영기능을 자랑하는 제품.

이처럼 하이브리드 카메라의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프로세서 성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칩들은 연속 촬영 이미지의 수치를 크게 개선하고 있으며 비디오와 사진 기능의 전환을 빠르게 하는 등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노리츠강기(주) 서울지점, 보급형 디지털미니랩 신제품 발표회 가져

노리츠강기(주) 서울지점은 지난 2월 17일 서울아미가호텔에서 보급형 디지털미니랩 'QSS-3300 Digital'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QSS-3300 Digital'은 지난해 출시된 'QSS-3301'과 'QSS-3302'의 뒤를 잇는 초소형 디지털 미니랩으로서 다양한 디지털기능을 지닌 첨단 디지털 미니랩 제품과 디지털 서브 제품군이 함께 전시

되었다.

노리츠강기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 2월 17일 서울아미가호텔을 시작하여 2월 22일에는 전주코아호텔, 2월 24일에는 부산 롯데호텔 등에서 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마이크로큐닉스(주), KIS DKS 디지털미니랩 발표회 가져

마이크로큐닉스가 지난 1월 26일 서울힐튼호텔에서 프랑스 KIS Photo-Me 그룹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디지털미니랩 발표회를 가졌다. 마이크로큐닉스 측은 "MSB노광시스템을 핵심기술로 꼽는 DKS 디지털미니랩은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판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으로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인디아, 말레이시아, 타이 등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큐닉스의 주최로 1월 26일 서울힐튼호텔에서 디지털미니랩 발표회를 가졌다.

사무기기

'도시바' 지역 거점, (주)카이스스 중부지사 개설

디지털 복합기 전문기업 (주)카이스스가 지난 1월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중부지사를 개설, 충청권과 호남권 영업공략에 나섰다

카이스스 중부지사는 충청 및 호남지역의 유통조직 관리, 대형 수요처에 대한 '도시바' 디지털 복합기 영업 및 서비스, 그리고 물류 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중부지사는 제품 전시, 회의, 교육

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쇼룸을 갖추고 있어 내방 고객 및 지역 유통조직에 대한 실시간 제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카이시스는 1981년(舊)구 영사무기 법인 설립을 통해 도면 및 청사진 복사기, 대형 입출력 시스템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지켜왔으며 많은 네트워크 환경개선의 노하우와 솔루션 기반 디지털 잠재력을 축적해 온 기업이다. 2001년 코스닥(KOSDAQ) 상장을 통해 기업을 공개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 도시바와 함께 디지털 복합기 국내 영업을 전개함으로써 디지털 사업영업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새 공공물품 조달제 '논란'

조달청이 최근 고시한 새로운 공공 물품 조달 제도를 놓고 관련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조달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격 경쟁을 더욱 부추겨 합리적인 가격을 무너뜨리는 등 조달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복사기·프린터·프로젝트 등 일부 사무기기 업체 등은 새로운 제도를 확정된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재계약 시점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업 공백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달 기존 조달 체제를 개편해 '다수 공급자 물품 계약 제도(MAS)'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특정 업체를 선정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적격성을 통과한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모든 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적격성이 평가된 업체에 '최혜 고객 가격'을 제시하도록 해 시장 경제의 원칙에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달청이 제시한 최혜 고객 가격의 기준이 모호해, 결국 이전보다 더욱 극심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는 등 역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조달청은 자체적으

로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시장 조사에 나서 그 가격이 최혜 고객 가격보다 더 저렴하면 공급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달청은 최혜 고객 가격을 '업체의 고객 중에서 가장 우대 그룹이 받는 가격'으로 다소 애매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 물품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행정 소요 일수를 대폭 단축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 중이어서 조만간 구체적인 조달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학부품 및 소재

부품·소재 업체들 원가절감에 '올인'

국내 부품·소재업체들이 생산 원가절감에 '올인'하고 있다.

연초부터 삼성·LG 등 주요 세트 고객사들이 일제히 부품 공급단가 인하 요구에 나서면서 부품업체도 이에 발맞춰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절약 등 단기적인 공여지책보다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올해 협력 전문업체의 설비 투자 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개 협력 업체에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직원도 파견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협력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총 300억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장기적인 원가절감 포석이 깔려 있다.

카메라모듈 업체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부품이 선택 기준이다. 선양디엔티는 올해부터 렌즈 조달업체를 일본과 대만으로 확대하고 있다. PCB 조달업체로는 중국 업체를 검토 중이다. 반대로 커넥터는 조달업체를 일본에서 국내 업체로 돌렸다. 이 회사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올해 30%의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성엘컴텍 역시 중국 및 대만 PCB 업체와 공급 협상을 추진 중이다. 렌즈도 중국 현지 조달을 모색하고 있다. 한성엘컴텍은 이를 통해 올해 150억원 가량의 원가 절감을 이뤄낼 방침이다.

LCD용 광학필름 가공 업체인 세진티에스도 가공 장비가 얇은 필름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해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자체 아이디어로 개발,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였다.

'비구면 유리렌즈' 국산 개발 열기 '후끈'

휴대폰에 300만 화소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유리렌즈가 비구면 유리렌즈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에 국내업체들이 앞다투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국내 카메라모듈 업체는 가격이 비싸고 수급도 불안정한 일본 제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쓰고 있다.

세코닉스는 최근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현지 공장에서 카메라용 비구면 유리렌즈 생산에 들어갔다. 최근 렌즈 생산 설비를 월 50만개에서 80만개로 늘리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 일본 업체와 겨룬다는 계획이다. 삼성테크윈은 자사의 300만 화소 이상 광학 줌이나 자동초점 기능이 있는 카메라모듈에 적용하기 위해 비구면 렌즈의 생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마이크롭틱스는 경기도 용인의 사업장에서 비구면 유리렌즈의 생산에 들어갔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비구면 유리 렌즈는 우선 모기업인 한성엘컴텍의 카메라모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디오스텍은 6월부터, 코렌도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휴대폰 부품 중 카메라모듈 원가비중 높다

휴대폰 부품 중 카메라모듈의 원가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고급형 휴대폰에 사용되는 3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모듈은 디스플레이 모듈을 제치고 가장 비싼 부품 자리에 오르는 추세다.

휴대폰에는 수천개가 넘는 많은 부품이 있지만 원가 비중은 천차만별이다. 전자 부품연구원이 조사한 'CDMA 휴대폰 국산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폰 부품 중 원가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디스플레이 모듈이다. 보통 휴대폰 원가의 4분의 1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메모리와 CDMA 모듈 칩이 원가의 약 12~13%를 차지한다. 카메라모듈은 130만 화소 이하 제품의 경우 8% 정도에 해당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휴대폰의 카메라모듈 원가 비중은 4위 정도에 그치지만 최근 200만 및 300만 화소를 거쳐 500만 화소 카메라모듈을 사용한 고급형 휴대폰이 속속 출시되면서 카메라모듈이 원가 비중 1위에 올라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다. 광학 줌 기능이 있는 300만 화소 이상의 국산 카메라모듈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카메라모듈의 높은 원가 비중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부품 · 소재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서

국내 부품 · 소재업체가 원화와 원자재가 상승, 단가인하 압력 등 불투명해진 사업 및 투자 환경을 '공격 경영' 카드로 정면 돌파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매출 및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는 침체기에 오히려 적극 투자, 호황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방 세트업체들의 전략에 맞춰 부품 · 소재업체도 매출과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메가픽셀급 카메라 모듈과 다층 · 멀티 PCB, 브러시없는(BLDC) 모터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품목 전환과 중국 ·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 노력도 적극 반영됐다.

부품 · 소재업체에 따르면 주요 업체들은 올해 고부가 전환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와 함께 평균 50% 이상의 공격적인 매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카메라 모듈업체는 대대적인 외형 및 설비 투자에 나선다. 업체는 부가가치가 높은 메가픽셀 제품 비중을 기존의 20% 수준에서 올해는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현재 8,000만대 수준인 국내 카메라 모듈 생산설비 규모도 올 상반기에 50% 가량 늘어나 연간 1억 2,000만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모터업체들은 차세대 주력 제품인 BLDC 모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생산 설비 확충을 통한 사업 다변화에 나선다. 실제로 프린터용 BLDC모터에 이어 OA기기, 가전, 자동차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중남미 시장은 물론 미국 기어드 모터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소재업체들도 올해는 평균 20% 이상의 공격적 매출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경기 하강과 패널 가격 인하에 따른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300mm 반도체 투자 확대와 7세대 LCD 라인의 본격 가동으로 관련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 광학 연속 2배줌 기능 카메라폰용 부품 개발

카메라폰용 첨단 부품을 국내 한 벤처기업이 개발했다.

광기기 응용 액추에이터 전문벤처기업인 하이소닉은 직경이 12.8mm에 불과하면서도 광학 연속 2배 줌을 실현한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3월경부터 필리핀 현지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 액추에이터가 두 개의 렌즈와 서터로 이뤄져 있는데 사용전압이 2.7V이고 초당 20mm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인근 보세 구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3월경부터 광학 줌 및 자동초점 액추에이터를 월 150만개씩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연속 3배줌과 서터, 자동 조리개 기능을 갖춘 액추에이터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다.

반도체 및 레이저

카메라모듈 업계 중국 생산 확대

중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카메라모듈 업

계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양디엔티가 웨이하이에 만든 카메라모듈 생산공장이 지난 1월 문을 연 것을 비롯해 작년 각각 텐진과 톈팡에 생산공장을 만든 한성엘컴텍과 코웰월드옵텍은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처럼 국내 카메라모듈 업계의 중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관세나 물류비 등 비용 절감 효과도 이러한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선양디엔티는 지난 1월부터 웨이하이 카메라모듈 공장을 가동했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전공정을 거친 반제품을 들여와 렌즈부착 등 후공정을 담당한다. 생산 규모는 월 50만개 정도며 1분기 내에 100만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된 제품은 국내 휴대폰업체의 현지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성엘컴텍은 최근 텐진 공장의 라인을 증설, 생산량을 월 30만개 수준에서 50만개로 높였다. 이 회사는 상반기내에 이를 다시 100만개로, 하반기에는 150만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회사는 생산량 확대를 통해 올해 중국 현지 매출을 작년 대비 500%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코웰월드옵텍도 현재 30만개 정도인 톈팡 공장의 생산량을 100만개로 늘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중국 현지 생산을 더욱 확대해 국내에서는 연구개발을 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전담할 방침이다.

카메라모듈 업체의 중국 생산이 늘면서 렌즈 업체도 중국 현지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다. 웨이하이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세코닉스와 코웨이 대표적이다.

30만 화소 카메라 모듈 다시 뜬다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모듈에 밀려 조명을 받지 못하던 30만 화소 카메라모듈이 3G 단말기에 힘입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속 멀티미디어 통

신이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고휘소 사진과 동영상 함께 지원하는 듀얼 카메라폰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듀얼 카메라폰이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날 프랑스 칸에서 열린 '3GSM 월드콩그레스'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노키아, 모토로라 등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들이 듀얼 카메라폰을 다수 선보였다. LG전자 역시 전시회에는 출품하지 않았지만 3월에 듀얼 카메라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메라모듈 업계는 올해를 기점으로 퇴조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30만 화소 카메라모듈이 3G 단말기에서 동영상 촬영용으로 잇따라 채택되고 있어 기존 설비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엘컴텍과 선양디엔티 등 카메라모듈 전문 업체들은 이미 듀얼 카메라폰용 30만 화소 카메라모듈 개발을 완료했다.

기존 30만 화소 카메라모듈은 높이가 약 7mm 정도인데 새로 개발된 제품은 4mm 이하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최근 3G 휴대폰은 동영상 통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휘소로 사진을 찍는 카메라모듈 이외에 동영상 촬영용 저화소 카메라모듈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추세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업계, 신개념 차세대장비로 무장

'신개념·최첨단 장비로 2005년을 공략한다.'

이오테크닉스·세메스·주성엔지니어링·피에스케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의 선봉장들이 차세대 장비로 무장하고 올해 농사를 시작한다. 300mm 반도체장비와 차세대 LCD장비를 앞세워 사업 다각화 및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꾀할 계획이다.

이오테크닉스는 300mm용 칩사이즈패키징(CSP) 웨이퍼마커(모델명 CSM3000)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 장비의 200mm용으로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확보하

고 있는 이 회사는 300mm 웨이퍼마커의 수요 증가로 올해 이 분야에서만 100억원 규모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CSM3000 장비는 웨이퍼 레벨(WL) CSP 공정이 적용된 300mm 웨이퍼에, 레이저로 제품 정보를 미세글자까지 정밀하게 각인하는 장비다.

세메스는 자사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전공정 DUV용 종합 도포현상장비 '스피너(모델명 K-SPIN12)'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4C4D(4개의 감광액 도포 및 현상장치)를 개발했다. K-SPIN12는 코터와 디벨로퍼 영역을 차단하는 상하 적층 구조로 각 영역에 별도의 베이커 유닛(가열장치)와 반송로봇을 배치하는 새로운 개념의 구조를 도입, 상호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선행기술장비인 8세대 LCD용 PE CVD장치 개발을 완료했다. 이 장비는 대폭 커진 기판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해 우수한 막 증착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챔버 크기를 확대하고 10개 공정 챔버를 부착해 생산성을 약 2배로 늘렸다.

최근에는 이 장비를 활용해 증착한 8세대 유리기판(2160×2400/42인치 와이드 TV 8대 제조 가능 크기) 샘플도 생산했다.

피에스케이 90mm 이하 공정이 가능한 300mm용 애싱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TE3000을 개발, 주력 제품으로 영업을 강화한다. 신장비는 기존 시스템에서 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식각 및 애싱 균일도 제어의 어려움을 극복한 300mm용 옥사이드 식각장비다. TE3000은 현재 국내외에서 테스트를 진행중이며 2006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애싱시스템은 웨이퍼에 반도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적회로를 형성시키는 공정 중 실리콘 산화막을 제거하는 식각공정 후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는 공정에 쓰이는 장비다.

한성엘컴텍, 200만 화소 카메라 모듈 개발

한성엘컴텍은 자동초점 기능이 있는 200

만 화소 카메라모듈을 개발, 4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성엘컴텍은 또 4월에는 광학 3배줌 기능의 300만 화소 카메라모듈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성엘컴텍이 개발한 자동초점 200만 화소 카메라모듈은 일부 일본 제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비구면 유리 렌즈를 사용해 화질을 개선했으며 초소형 스테핑 모터를 사용해 자동초점 성능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또 전원이 꺼지면 렌즈 위치가 그대로 멈추는 다른 제품과 달리 이 제품은 렌즈가 뒤로 들어가 외부 충격에 강하도록 만들었다.

빅스지텔레콤, CCD 방식 고휘소 카메라모듈 개발

일본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던 고체촬상소자(CCD)방식 고휘소 카메라모듈을 국내 벤처가 개발했다. 빅스지텔레콤은 지난 2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록화소가 200만 및 400만 화소인 CCD 방식 카메라모듈을 발표했다.

이 제품은 일본 후지필름마이크로디바이스의 CCD 센서를 사용해 만들었다. JPEG 방식 이미지 압축 기능을 내장했고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또 7cm 접사 촬영도 가능하다. 이 제품의 크기는 16×25×10mm다.

LG이노텍, 카메라모듈 집중 육성

LG이노텍이 후발주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카메라모듈 업계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올해 카메라모듈을 중점 육성 품목으로 정하고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3년 말에 3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한 이후 2년 만에 선두권에 진입하려는 셈이다. 작년 카메라모듈 매출이 100억원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출 증가 목표가 무려 10배에 이른다.